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알라하바드 기도편지 98)

성경을 읽다보면 가끔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점일획의 오류도 없다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읽고 믿으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부분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어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구절들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구절마다 구원의 관점에서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의문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삼하11장 “다윗의 죄” 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는데 다윗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싸우고 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강간했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결국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고 있는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한술 더 떠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라고 치켜세우셨습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영13:22-23)

하나님께서 강간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의 무엇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라고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결국 성경 열왕기상 15장5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오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영하고 깎기에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왕상15:5)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죄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우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즉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오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라고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고 죄의 길로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아들을 문 앞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년만에 16번째 말씀사경회)



코로나와 수술로 2년 만에 사역지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은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역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사역자들을 불러서 5월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말씀잔치인 말씀사경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강사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서 모든 일정을 이경훈선교사 혼자서 감당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거의 7시간정도 서서 강의를 해야 하기에 아픈 몸으로 혼자서 감당해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오히려 신이 나서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간의 일정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듯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빛의 원리, 가인과 아벨, 네가지 밭의 의미, 죄가 무엇인가?” 등 이런 제목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는데 사역자들도 얼마나 집중을 잘했는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저는 말씀사경회가 끝나고 나서 결국 며칠 심하게 몸살을 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각 처소에서 이 인도 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잘랄가르, 더바니 빌리지 마을의 긴급식자재 공급)



네팔 국경근처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첫 번째로 개척한 잘랄가르 교회와 다섯 번째로 개척한 더바니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가난하지만 꾸준하게 말씀으로 부흥하고 있는 교회라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더러브브릿지라는 NGO단체의 후원으로 6월5일 긴급 식자재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대부분의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113가정에 13가지의 식자재를 한 팩으로 만들어서 긴급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뭄의 단비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모두 너무 고마워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육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는 늘 고민이 따릅니다. 육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빵과 복음은 동시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복음이 먼저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식자재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분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말씀과 함께)

가슴으로 낳은 아들 라주와 아쇼크와 함께 매일 아침 2시간 정도 말씀공부로 하루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일 아침 말씀공부를 하지 못해서 갈증이 있었는지 말씀을 전하는 이경훈선교사나 배우는 두 사랑스러운 제자들 모두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는 축복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다져온 시간만큼 두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늘 마음이 뿌듯합니다.

저희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사역을 잘 감당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사역을 떠날 날이 올 터인데 그때 오히려 저보다 더 잘 감당해준다면 나중에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자가 더욱 말씀위에 견고히 서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도장에 찍혀서 천국에 갈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아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들에게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영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한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뜻대로 믿는 것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모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불렀는가? 모두가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생각했는데 만일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사역하고 행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영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해 집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행한 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 6. 22. 이경훈, 이영선, 이하성 가족이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1. 수술한 다리와 발바닥의 감각신경이 속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2. 말씀사경회에 참석한 사역자들이 각 처소에서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3. 육신의 떡을 공급받은 빌리지 마을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아가도록
4. 가슴으로 낳은 아들 라주와 아쇼크가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5. 6월에 헤브론학교를 졸업한 딸 하성이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학에 잘 진학 할 수 있도록

(현지 연락처)

현지 주소 : 14/2A Church Lane, Prayagraj, UP, INDIA. Pin-211002

현지연락처 : 국내 연락처 : 010-2741-3247(이경훈), 010-9991-5565(이영선)

카톡아이디(한국폰: josephpatna / 인도폰: ald2007)

후원구좌 : 358801-04-189171(국민), 301-0239-8352-51(농협) 예금주: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본부

첫 송금시 선교국 02-3459-1031/4로 이경훈선교사 후원임을 꼭 알려주세요.